“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

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36
2022 겨울

금강유역 하천에서 만나는 물고기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바다빙어과

크기 몸 길이는 약 10~15cm이다.

체색과 무늬 몸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은백색으로 등쪽은 회갈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다. 각 지느러미는 투명하고, 몸 중앙에는 짙은 가로줄이 있다.

주요형질 몸은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입은 크고 위로 향해 있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튀어나왔다. 입수염은 없고, 눈은 비교적 크다. 뒷지느러미가 끝나는 지점에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비늘이 약해서 벗겨지기 쉽다.

서식지 연안이나 저수지의 깊은 곳에서 서식하다가 산란기인 3월이 되면 얕은 개울로 이동한다.

먹이습성 동물성 플랑크톤, 수서곤충, 갑각류, 깔다구 유충을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2~3월로 연안에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하천이나 강의 얕은 곳, 호수 유입부로 올라 온다. 댐호나 저수지에 사는 육봉형 빙어는 하천이나 강의 얕은 가장자리의 모래나 수초에 알을 낳는다. 1년생으로 알을 낳고 죽는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눔과 연대로 상생합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한국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금강보호캠페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도랑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
-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